진짜 구세주의 구비 요건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사람에게 있는 이유

사람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인 고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피가 되는 고로 하나님의 피를 받아서 우리 인간이 되어진 고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올시다.

불경에는 계두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생미륵불이 나타나며, 석가모니가 죽은 지 3천7년 만에 생미륵불이 나타난다고 쓰여 있는 것이올시다.

이 사람이 6천년 만에 나타난 고로 틀림없이 성경적으로 엿새 동안 일을 하셨고 이레 되는 날 쉬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전부다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는 고로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이레 되는 날 쉬셨다는 말씀의 짝을 찾아야 답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씀을 짝을 맞춰보면 엿새 동안 일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루를 천 년으로 계산한다면 육천 년이 되는 거죠? 육천년 동안 하나님이 구세주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구세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육천년이 걸려서 만들어진 것이올시다. 이제그대로 사람 만들기는 쉽지만 감로이슬성신을 가지고 나와야 구세주의 자격을 있는 고로, 그런고로 감로이슬성신을 만드는 데 육천년이 걸린 겁니다. 육천년이 걸려서 감로이슬성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구세주를 만들 때에 이 사람의 어머니 되는 뱃속에 잉태하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가짜 구세주

그래서 이사야서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가 자기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마태복음 12장28절에, 자기는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고 자백을 한 고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마태복음 말씀도 거짓말이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병정 판텔라의 아들이라는 것이 오늘날 이 지구 땅에는 널리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나라요, 그 유대나라를 로마병정들이 점령했을 때에 로마병정들이 유대나라의 여자들을 모조리 강간을 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것이올시다. 예수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로마병정 판텔라한테 강간을 당하여 예수를 잉태를 해서 낳은 고로 예수는 로마병정 판텔라 아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영국에 BBC 기자한테까지 알려져 가지고 영국의 BBC기자가 『성혈과 성배』라는 책을 써서 낼 때에 "예수는 로마병정 판텔라의 아들이다. 예수는 십자가가 지지 아니하고 불란서로 망명을 해서 84살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영국 런던 재판장에서 판결이 된 것입니다. 영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 영국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되니까 영국 나라 전국이 혼미에 빠져가지고 그럴 때에 총리가 '예수가 로마 병정 판텔라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안 졌다는 말을 절대로 외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너만 알아라.' '너만 알아라.' 귓속말로 전해진 말이 미국에도 알려지고 유럽 일대에도 알려져서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가짜 구세주는 언젠가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지(자기)가 진짜 구세주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라,"고 요한복음 11절 25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말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죠?

구세주 조희성님

가짜 구세주를 사람들이 안 믿게 되는 근본 이유

영국에 있는 BBC 기자가 책을 써낸 『성혈과 성배』라는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조상대대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게 되었죠. 선진국일수록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영국에서 재판 사건이 일어난 것이 널리널리 알려져서 전 세계가 예수를 믿지 않는 풍조가 돌게 된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진짜 구세주가 이 지구 땅 한국에 나왔기 때문에 진짜 구세주는 마귀를 전멸시키는 능력이 있는 고로 마귀를 구세주라고 믿는 말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끔 할 수도 있는 능력이 구세주한테 있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기독교가 공산주의의 보금자리인 고로 이제그대로 공산주의가 없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진짜 구세주가 나오면 가짜 구세주는 멸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격암유록도 「출장론」에 '서호출생진인(西湖出生眞人)'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서(西)는 쇠 금(金)자를 말하는 거고 호(湖)자 인고로 물가 포(浦)자 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김포에서 진인이 나타난다고 격암유록에도 쓰여 있고, 이제그대로 계두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생미륵불이 나타난다고 불경에 쓰여 있죠? 계두왕이라면 신라 나라의 왕(王)인 고로 신라가 한국 나라와 같죠? 한국에서 생미륵불이 나타난다고 불경에도 쓰여 있고, 성경에는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9절에 "섬들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 일으키리라" 동방나라하면 지구 땅 위에서 한국 나라와 일본 나라를 가리키는데, '섬들아 잠잠하라.'한 것은 일본 나라가 섬나라인 고로 일본 나라 섬나라에서는 안 나타나니까 '조용하라.' 이 소리죠? '열국 왕들'이라는 것은 세계 왕들을 가리키는 거죠? 세계 왕들이 동방의 의인 앞에 와서 굴복한다는 말은 전부다 엎드려서 절하게 되어 있다, 이 소리죠?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킨다.'고 했으니까, 동방나라 중에서 땅 끝 땅 모퉁이 나라가 우리 한국 나라죠? 한국 나라가 한반도죠? 모퉁이 나라죠? 대륙으로부터 뻗어 나온 끄트머리 나라죠?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킨다고 했으니까, 한국 나라에서 동방의 의인을 일으킨다는 것이올시다. 동방의 의인은 구세주를 말하는 것이요. 구세주가 한국 땅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에 또렷하게 쓰여 있죠? 불경에도 신라 나라 왕 계두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생미륵불이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틀림없이 한국 나라에서 생미륵불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거죠?

새벽별로 태어나는 구세주

그런데 성경 호세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는 하나님이 말을 했으니까, '내가'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히브리어이니까 이긴자를 가리킨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긴자에게 이슬과 같이 내리는데 이슬이 내리는 저 이긴자가 백합화 같이 핀다는 거죠? 백합화라는 것은 합동찬송가 84장 후렴에 쓰여 있죠?

♬ 구주는 산곡의 백합~ 명랑한 새벽별 만인 위에 뛰어나시는 줄세~

구세주는 백합화요, 새벽별이라는 말이죠? 이슬성신을 내리는 이 사람이 새벽 4시에 태어났죠? 거기에다가 28일 별수 날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새벽별이 되는 거죠? 새벽별이 되기 때문에 새벽별은 밝은 별이니까, 밝을 희(熙)자 별 성(星)자로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태어나기는 신미생(辛未生)으로 태어났고 신미생은 양띠를 말하는 것이요. 음력 6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양의 달에 태어난 겁니다. 양의 달에 태어났고 28일 별수 날에 태어났으니까 별이 되는 거죠? 별은 별인데 새벽4시에 태어났으니까 새벽별이라는 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새벽별은 밝은 별인 고로 밝을 희(熙)자 별 성(星)자로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세주의 이름은 새벽별이 되는 것이올시다.

묵시록 이제그대로 2장 26절로부터 28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리라" 이기는 자가 구세주라는 것이 호세아서에 쓰여 있죠? 호세아서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합화는 구세주인고로 그런고로 새벽별도 되고 이슬성신을 내리는 자가 구세주라는 뜻이죠?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과 불경과 격암유록에 기록된 것을 보면, 너무너무 확실한 구세주죠?

예배인도를 이 사람이 할 적마다 사진을 찍으면 이슬성신이 찍혀 나와, 안 찍혀 안 나와? 그 이슬성신은 일종의 빛이라고 했죠? 원래 하나님은 빛이라고 창세기서에 쓰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모양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고 빛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서 나타나 있게 되어 있는 고로 오늘날 감로이슬성신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조금 있으면 구세주의 얼굴에서 빛이 나간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구세주의 얼굴에서 빛이 나간다는 말은 이제그대로 온 세상 태양빛이 어두워지고 구세주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비칠 때에 그 빛은 온 우주를 밝히는 것이올시다. 이제그대로 구세주는 완성된 하나님으로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 빛은 태양빛보다 수십 배의 해당되는 밝은 빛인 고로 그런 밝은 빛이 비칠 때에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간다고 한국 방송에서 떠들겠죠? 「조희성」이라는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간다고 막 방송이 떠들면 세계 만민들이 다 알게 되겠죠? 만민들이 빛이 나가는 사람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까, 안 몰려들까? 얼굴에서 빛이 나가는 사람이라면 구세주인 고로 구세주를 찾아보려면 은금보화를 싣고 모여들게 되어 있죠? 은금보화를 갖다가 전부 구세주한테 갖다 주는 고로, 구세주는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 전부 구세주 후보자들인 고로 은금보화를 전부 나눠주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떼부자가 되죠?*

2002년 12월 2일 설교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5장 모세≫

(3) 모세가 카이로에서 누나 미리암을 만나다

(3) 모세가 카이로에서 누나 미리암을 만나다

미리암은 40년 전에 모세 아기를 담았던 상자와 똑같은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생 모세가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된 그 장소에 갈대상자를 갖다놓고 늘 지켜보았습니다.

한편 모세왕자는 비돔 성읍을 둘러보고 또 라암셋 성읍의 국고성 건설현장까지 시찰을 끝내고 7일 만에 카이로의 임시거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모세는 꿈에 유모 요게벳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어릴 적에 유모 요게벳이 궁전에서 애굽의 말과 글을 가르쳐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모세 자신이 애굽 왕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카이로의 나일 강에 버려진 갈대상자 속에서 건져진 히브리 자손이라는 내력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던 유모 요게벳의 진지한 모습도 그날 꿈에 보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모세 왕자는 그 자신이 지금 카이로에 와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시녀들이 차려놓은 아침식사를 마친 모세 왕자는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성읍 한복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나일 강을 따라 깊은 상념에 잠긴 채 거닐었습니다. 문득 눈을 들어보니 강 숲속에 갈대상자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니, 버드나무에 기대어 앉아 그 갈대상자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중년 여인을 발견하였습니다.

호위병이 중년 여인에게 "일어나서 왕자님께 예를 갖추라!"라고 소리쳤습니다. 중년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왕자님께 공손히 인사를 하였습니다. 모세 왕자는 갈대상자의 주인이 그 중년여인임을 알고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갈대상자가 무엇하는데 쓰이는지 그 용도를 알고 싶소.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겠소?"

중년여인 미리암이 모세 왕자의 얼굴을 쳐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왕자의 모습이 현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남동생 아론과 너무나 빼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일 강변에서 만난 모세 왕자와 누이 미리암

"이 갈대상자는 40년 전에 내 동생을 담았던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 요게벳은 태어난 지 석달 된 아이를 이 상자에 담아 여기 나일 강의 숲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되는 나에게 갈대상자를 지켜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 왕자는 '요게벳'이라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궁전에서 그에게 글공부를 가르쳐줬던 유모의 이름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호위병들을 멀찍이 물러서도록 명했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그때 갈대상자 속에 있던 아이는 어떻게 되었소?"하고 나직이 물었습니다. 중년여인 미리암은 "여기 나일 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하셉숫 공주님이 갈대상자를 발견하시고 그 갈대상자 속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주님께 그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하였습니다. 요게벳이 그 아이의 생모인 줄을 모르는 공주님께서는 요게벳도 아이와 함께 궁궐에 데리고 가서 유모로 삼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미리암의 말을 듣자마자 모세는 "유모 요게벳이 진정 나의 어머니였단 말인가!"하고 저절로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는 유모 요게벳이 죽는 날까지 그 자신에게 생모라는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서 매우 섭섭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생모 요게벳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자신이 낳은 아들을 앞에 두고 한 번도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세의 두 눈에서 구슬 같은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중년여인 미리암에게 "누님, 바로 내가 40년 전에 이 갈대상자 속에 있었던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편안하신지요?"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계신다는 미리암의 대답을 들은 모세는 아버지를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누나 미리암에게 약속하기를, 삼일 후 해질녘에 평민복장을 하고 나 혼자만 이곳에 다시 오겠으니 그날 아버님이 계시는 집으로 인도하라고 다짐하며 서로 약속하였습니다.

나일 강변에 누나 미리암을 만난 후 카이로의 임시거처로 돌아온 모세왕자는 상(上)애굽의 데베 궁전에서 보낸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모세 왕자가 하(下)애굽의 다스림을 중단하고 열흘 내에 데베 궁전으로 돌아오라는 하셉숫 여왕의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셉숫 여왕이 모세 왕자에게 왕위를 서둘러 승계하기 위해 모세의 환궁을 독촉한 것입니다. 여왕의 편지를 받은 모세는 앞날을 고민하다가 보니 그날 밤늦도록 잠을 못 이루고 새벽녘에야 잠시 눈을 부쳤을 뿐입니다. 왜냐면 모세 자신이 왕위에 오르면 투트모세 3세와 원수지간이 될 것이며, 어쩌면 서로 피비린내가 나는 권력싸움이 그칠 날이 없을 것임이 훤하게 내다보였기 때문입니다.*

안젤라